

시청률×화제성 ‘압도적’

대한민국은 지금 〈낭만닥터 김사부 2〉, 〈스토브리그〉

앞이 중

2049 8.6% 돌파! 드라마 화제성 1위! 야.알.못까지 사로잡은 스토브리그 신드롬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극본: 이신화, 연출: 정동운)가 9회 연속 2049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일(토) 방송된 9회는 1부 6.2%, 2부 8.6%(이하 닐슨코리아/수도권 기준)를 돌파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웠다. 특히 최근 들어 토요일은 동시간대뿐만 아니라 토요일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콘텐츠 영향력 역시 압도적이다. TV 화제성 분석 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 따르면, 2020년 첫 주의 드라마 화제성 1위는 SBS 〈스토브리그〉가 차지했다. 이렇게 TV를 넘어 온라인까지 뜨겁게 달구며 연일 가파른 화제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스토브리그〉는 야구에 관심이 없는 시청자 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모두에게 호평받고 있다. 야구팬들은 “우리 팀 이야기”라며 공감하고, 야.알.못들은 꿈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드림즈’의 변화 과정에 환호를 보내고 있다. 타성에 젖어 대중 사는 사람들을 뒤흔들고, 조직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개선해가는 백승수 단장의 사이드 리더십에 시청자들이 뜨겁게 반응한 것이다.

‘프로야구 프런트’라는 신선한 소재를 초밀착적인 시선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브리그〉는 ‘스포츠 드라마 = 실패’라는 공식을 완벽하게 깨부수었다.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로 스토브리그 신드롬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매주 금토 밤 10시 방송.

월화 시청률 압도적 1위! 트리플 크라운 달성! 대한민국은 ‘낭만 돌풍’ 중!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극본: 강은경, 연출: 유인식)는 첫 회부터 이례적인 시청률을 보였다. 지난 6일(월) 방송된 첫회는 1부 3.8%, 2부 5.3%를 기록하며 동시간대는 물론 당일 방송된 지상파-종편의 모든 프로그램 중 2049 시청률 1위에 당당히 등극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7일(화) 방송된 2회는 1부 5.4%, 2부 7.5%, 13일(월) 방송된 3회는 1부 5.3%, 2부 8.2%의 상승세로 1위 왕좌를 수성하고 있다.

2049 시청률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청률, 전국 시청률까지 1위를 차지, 트리플 크라운의 위업을 이룩한 〈낭만닥터 김사부 2〉는 지난 14일(화) 4회 방송에서 수도권 시청률 20%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김사부 역을 맡은 대한민국 최고 배우 한석규의 명품 연기는 안방극장 1열을 사수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한석규는 때로는 폐부를 찌르는 촌철살인을, 때로는 정감 어린 웃음을, 때로는 가슴 먹먹한 감동을, 때로는 훈훈한 위로를 ‘혼연일체’가 된 연기로 승화시켜 시청자들의 채널을 고정시키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이성경과 안효섭은 방향하는 청춘의 고뇌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며 젊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선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낭만닥터 김사부 2〉가 불러일으킬 따뜻한 ‘낭만 돌풍’이 기대되는 이유다. 매주 월화 밤 9시 40분 방송.



2020년 '역대급' 드라마 라인업 안방 정조준 완료

스토브리그, 낭만닥터 김사부 2 열풍 이어간다

SBS는 <스토브리그>에 이어 <낭만닥터 김사부 2>까지 연이은 성공과 호평 속에 새해를 맞았다. 특히 창사 30주년을 맞이한 2020년 SBS 드라마는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하다. 그중에서도 화려한 배우 라인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와 스토리, 탄탄한 연출이 돋보이는 화제의 드라마 4편이 눈길을 끈다.

드라마 여제 김혜수가 돌아온다! <하이ENA>

<스토브리그> 후속으로 <하이ENA>가 2월 21일(금) 첫 방송된다. <하이ENA>는 머릿속엔 법을, 가슴속엔 돈을 품은 변호사들의 물고, 뜯고, 찢는 하이ENA식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다. 김혜수와 주지훈이 처음 호흡을 맞추며, 이미 공개된 1차 티저에서 두 배우의 열연이 예고되었다. 대한민국 대표 배우 김혜수의 <시그널> 이후 4년 만의 안방극장 컴백 작품이자, <별에서 온 그대>, <뿌리 깊은 나무> 등을 연출한 장태유 감독의 컴백 작품이기도 하다. 2013년 SBS 국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김루리 작가가 대본을 써 기대를 모은다.



장르물 활약 이어진다! 김서형의 <아무도 모른다>

SBS는 그동안 다양한 장르물을 선보이며 도전을 이어왔다. 오는 3월 방송 예정인 <아무도 모른다>는 “좋은 어른을



만났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경계선에 선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이다. 김은향 작가의 촘촘하고 탄탄한 대본, 이정흠 감독의 힘 있는 연출이 만나 명품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김희선*주원, 역대급 케미 선보인다 <앨리스>

2020년 금토를 책임질 휴먼 SF 드라마 <앨리스>(극본: 김규원, 강철규, 김가영, 연출: 백수찬)는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 남녀가 시간과 차원의 한계를 넘어 마법처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SF라는 장르와 휴머니즘이 잘 버무려진 신선한 스토리로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품위 있는 그녀>, <나인룸> 이후 긴 공백기를 가졌던 김희선이 복귀작으로 선택해 주목된다. 여기에 군제대 후 첫 작품으로 <앨리스>를 택한 주원이 합류하여 이들의 역대급 케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최강희, 유인영, 김지영이 뭉쳤다! <굿 캐스팅>

<굿 캐스팅>(극본: 박지하, 연출: 최영훈)은 한때는 잘 나가는 국정원의 블랙요원이었지만, 이제는 근근이 책상을 지키는 여자들이 대기업의 기술유출 비리를 캐기 위해 현장으로 위장 잠입하여 스파이 작전을 펼치는 액션 코미디 드라마다. 최강희, 유인영, 김지영, 이상엽, 이종혁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출연하여 기대를 모은다. 또한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 묘사와 독특한 워맨스 케미는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재미, 대리만족을 동시에 선사할 전망이다. 2020년 4월 방송 예정.



지난 12월 31일 <2019년 SBS 연기대상>에서 이들 드라마의 1차 티저가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2020년 SBS 드라마 라인업 미쳤다”, “티저만 봐도 역대급이다”, “빨리 2020년 드라마 보고 싶다”며 뜨겁게 호응했다. 드라마 관계자는 “공개된 4편의 작품 외에도 다양한 기대작들이 준비돼 있다. 2020년 SBS 드라마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도 좋다”고 말했다.

동거동행 인생과외 집사부일체, 백종원의 골목식당 100회

웃고 즐기며 배우고, 예능 속에서 공익 실천



<집사부일체>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이 나란히 100회를 맞았다. <집사부일체>는 지난해 12월 29일(일), <골목식당>은 1월 8일(수)에 100회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2017년 12월 31일에 첫 회를 방송한 <집사부일체>는 이승기, 이상윤, 육성재, 양세형이 사부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보는 아주 특별한 동거(同居)동작 인생과외이다. 그동안 박지성, 김병만, 김수미, 손예진, 이상화, 박진영, 강형욱, 장윤정 등이 사부로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다. 또한 각 분야의 레전드로 불리는 사부가 전하는 가르침은 예능을 넘어서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항서 편은 2049 자체 최고 시청률(8.3%)을 찍기도 했다. 1월 12일부터는 신성록이 고정 멤버로 합류하면서 더욱 막강한 팀워크를 과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세영 PD는 “제작진이 프로그램을 대하는 마음은 아주 오래된 연인을 대하는 마음처럼 애증이 공존한다. 그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스태프와 새로운 에너지로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100회 소감을 밝혔다.

2018년 1월 4일 첫 방송을 시작한 <골목식당>은 요식업의 레

전드 백종원 대표가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대 꽃길삼거리, 포방터, 원주 미로예술시장, 평택역 뒷골목 등 거쳐 가는 골목마다 화제를 모으며 영세한 식당에 힘과 용기를 주었다. 대전 청년구단 편은 막걸리 대담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끌면서 최근에는 백종원의 식당에 납품하는 행운도 얻기도 했다. 포방터 편은 흥탁집 아들의 개관전선 과정과 ‘실력과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교훈을 준 돈가스집의 사례로 화제를 모았다. 동시간대 2049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골목식당>의 자체 최고 시청률은 올해 첫날 기록한 6%로, 새해에도 <골목식당>에 대한 기대와 애정은 쭉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정우진 PD는 “100회까지 오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다. 골목상권에 계신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고, 시청자분들께 감동과 재미를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쾌하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예능본부가 되고 싶다

- 예능본부장 최영인

SBS 예능의 현황과 올해 계획은 어떠한가?

현재 예능은 모든 요일에서 동시간대 1위를 하고 있고 광고와 화제성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장수 프로그램이 많은데 오랫동안 꾸준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새로운 것이 더 잘 보이는 시대에 롱런한다는 것은 '불편하지 않은' 미세한 변화를 주면서 시청자의 입맛을 맞춰준다는 뜻이다. 새로움과 익숙함을 동시에 선사해야만 롱런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와 동시에 빠른 콘텐츠 소비 패턴에 부응하는 시즌 기획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예능 시간대가 확대된 만큼 기회로 여기고 이 시간대에 시즌제 프로그램을 계속 선보일 것이다. 이미 <한섬타이거즈>가 첫 선을 보였고 앞으로도 5~6개의 시즌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은 롱런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 시즌제 프로그램, 스펀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 모두를 실현하려면 건강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PD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은 '솔직'하고 '수평'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거침없이 토론하고 서로 격려하는, 구성원이 건강한 마인드로 유쾌하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예능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양PD로 시작해서 예능의 수장이 되었다. 그런 경력이 도움이 되나?

교양 PD로 즐겁게 일하고 있던 97년에 교양과 예능이 협업하는 <이문세의 라이브>가 생겼다. 그 팀에 합류하면서 예능 제작 방식을 처음 경험했는데 재미있었다. 그 후 99년

에 당시 안국정 제작본부장이 "나는 예능이 더 잘 맞는 거 같다. 옮기는 게 어떻겠노?"라고 하셨다. 메시지 전달을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룻밤 고민하고 예능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기획의 경계가 없어지는 융합의 시대다. 사실 요즘 프로그램을 보면 다큐멘터리를 제외하고는 교양/예능의 구분이 모호하다. 초기 접근 방식만 다를 뿐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현하는 게 PD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양쪽을 모두 경험한 것은 행운이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시청자의 시각도 훨씬 넓어졌다. 박장대소하는 프로, 눈물과 미소가 가득한 프로, 가벼운 배움이 있는 프로그램이 모두 예능이라고 불리는 시대에 후배들도 다양한 방식을 접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함께 예능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선후배들이 경쟁사로 옮겼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현대는 이동이 잦은 노마드의 시대다. 계속 함께하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 같은 길을 가는 동료이자 경쟁자들이 됐다. SBS 출신들이 각기 다른 회사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어 한편으로 뿌듯하고 동시에 건강한 자극이 된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건강하게 경쟁하는 것은 서로 성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더 성장하고 싶다.

현재 SBS에서 여성으로서 최고위직이다. 유리천장을 느껴본 적이 있나?

여성이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의식하지 못했다. 특히 요



즘은 성향과 능력의 문제이지 성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여성이 공감 능력이라든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더 유리한 면도 분명히 많다.

디지털이나 사업 쪽 목표는 어떠한가?

새로운 재원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은 기획의 땅이다. 예능 D스튜디오에서는 올해 기존 멤버에 대학생 인턴들을 더해 참신한 시도와 안정적 재원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글로벌콘텐츠Biz팀이 예능본부에서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글로벌 공동제작은 <런닝맨>을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두드려 왔던 것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으면서 새로운 씨앗을 심는 사업들도 활기를 더할 것이다. 더불어 공연사업(<슈퍼 콘서트>)도 올해는 아시아, 미국, 유럽까지 확대해 꾸준히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 것이다. 포맷 개발 회사 포맷티스트 사업은 작년의 성공적인 첫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다.

SBS Plus 돌아온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김수미 빼고 출연자 전원 교체

개그맨 윤정수, 이진호 합류 - '인기 예능 예약'

옥 한 사발에 정신이 번쩍 들고 국 한 그릇에 위로받는 국내 최초 '옥 힐링 국밥집'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가 짧은 휴식 끝에 1월 6일(월) 11회로 새해를 활기차게 시작했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는 김수미만 빼고 출연자 전원을 교체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기대를 모은다.

스타 셰프들을 가르치는 스승 김수미가 직접 국밥을 만들고, 칠전팔기의 아이콘이자 레전드 입담꾼인 윤정수, 대세 개그맨 이진호가 새롭게 합류해 재미를 책임진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는 지난해 방송을 시작한 후 3주 만에 동시간대 온라인 화제성지수(TCI)에서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에 이어 타사의 모든 예능 프로그램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더니, 9회에는 가구 시청률 1%를 넘어서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이야기와 국물 맛은 더 진해졌고 재미는 더 시원해진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가 올해는 또 어떤 기록들을 만들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TV 최초 방송! 설 특선 영화 〈나를 찾아줘〉, 〈나의 특별한 형제〉, 〈악인전〉

명절 특선 영화에서 타사를 압도하며 강세를 보이는 SBS가 이번 설 특선 연휴에도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 SBS는 2020년 설날 특선 영화 라인업으로 〈나를 찾아줘〉, 〈나의 특별한 형제〉, 〈악인전〉을 TV 최초로 방송한다.

외화인 〈나를 찾아줘〉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닉과 에이미 부부의 결혼 5주년 기념일에 에이미가 실종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에이미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숨겨둔 편지와 곳곳에서 발견되는 단서로 인해 경찰이 닉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벌어지는 스릴러 영화로 식스센스급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1월 23일(목) 밤 11시 50분 방송 예정.

〈나의 특별한 형제〉는 어릴 적 사고로 타인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하(신하균)와 어려서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동수(이광수)가 서로의 도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웃음과 감동이 공존한다. 1월 24일(금) 저녁 8시 45분 방송 예정.

〈악인전〉은 우연히 연쇄살인마의 표적이 되었다가 살아난 조직 보스 장동수(마동석)와 범인 잡기에 혈안이 된 강력반 미친개 정태석(김무열)이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 손잡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두 개성파 배우의 연기 대결이 볼 만하다. 1월 25일(토) 밤 10시 10분 방송 예정.

이밖에도 지난해 추석 특선으로 방송돼 모든 채널을 망라해서 영화 시청률 1위를 차지했던 〈신과 함께- 인과 연〉이 1월 27일(월) 오후 5시 25분에, 역시 지난해 추석 특선 영

화 중에 시청률 2위를 차지했던 〈내 안의 그놈〉이 1월 26일(일) 밤 11시 5분에 방송이 예정돼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SBS×문체부 공동 프로젝트 ‘뿌리를 가꿉니다’ 시행



SBS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2020년 근하신년 프로젝트 ‘뿌리를 가꿉니다’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 구조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2020년 국가 정책 방향을 ‘뿌리를 가꿉니다’라는 통합 메시지 테마로 선택한 것이다. SBS와 문체부는 메시지 테마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국민참여형 전시, 전시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 제작 및 송출, 캠페인/전시 내용의 온라인 바이럴 확산을 포함한 통합 솔루션 캠페인의 형태로 프로젝트를 전개하기로 했다.

그 첫 단계로 1월 6일(월) 목동 SBS 사옥 로비에서 SBS 사원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뿌리를 가꿉니다’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했다. 새해 정책을 뿌리 형태로 전시하고, 시민 참여에 따라 나무가 성장하는 영상시스템을 구성한 것으로, #뿌리를 가꿉니다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로비에는 캠페인의 취지와 새해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안내 부스도 설치되어 방문객들을 맞았다. 오프라인 캠페인을 활용하여 제작한 TV 캠페인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총무팀 김정태 부장 안식년



총무팀 김정태 부장이 2월부터 안식년을 맞이한다. 김정태 부장은 1992년 2월 SBS에 입사하여 당시 SBS 농구단 설립의 산파 역할을 했으며, 2007년 프로농구 안양 SBS 스타즈의 창단에 이르기까지 젊음을 SBS 스포츠와 함께했

다. 이후 각 본부 운영팀 및 총무팀에서 근무하면서 까다로운 지원 업무를 항상 따뜻하게 처리했으며, 팀의 만형으로서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안식년 환송회 자리에서 후배들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바빠도 서두르지 않는다”, “근무 마지막 날까지 일했다” 등의 말로 칭송했다. 안식년 첫 스케줄로 부인과 함께 유럽 여행을 택한 김정태 사우에게 현역 시절의 향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을 기원한다.

사우기고



‘누군가의 믿는 구석이 되고 싶어서’

- 라디오1CP 소속 이상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 위에서 대피하는 사람들 속에서 곳곳이 연주하는 악사들 같다고요. 녹록지 않은 미디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라디오 PD들이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특히 ‘라디오’라는 매체는 올드 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올드한 매체니까요. 제 주위 친구들도 아무도 라디오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라디오 PD가 되겠다고 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항상 받곤 했습니다. 전망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그 어슴푸레한 길을 왜 걷느냐고 묻고 싶었겠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악과 이야기로 위로를 주고 싶어서 라디오 PD가 되고 싶다”고. 그 낯간지러운 말을 참 잘도 해

냈는데, 어느새 진짜 라디오 PD가 되었습니다. 1년 남짓한 제작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는 처음의 다짐들을 많이 잊어갑니다. 긴장되는 생방송도, 눈이 벌개지는 편집도, 익숙해지는 만큼 일은 쉬워지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아니 방향을 잡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건 아닐까 스스로의 가치와 성과에 의심을 품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구석에 쌓여있는 큐시트들을 보았습니다. 수북이 쌓인 종이 뭉치를 뒤적거리려보니 끝도 없이 많은 하루들이 담겨있더군요. 1년 365일, 하루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왔다고 생각하니 라디오 PD가 되고 싶어서 꾸었

던 처음의 꿈이 느껴졌습니다. 라디오는 우연한 행운의 덫을 만드는 일이자, 구석에 핀 꽃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라고, 문 밖에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일이라고 믿었던 그때의 그 감정 말입니다.

앞으로 그 감정들이 자주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권태로워도, 청취자들의 일상만큼은 즐겁고 뭉클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누군가의 믿는 구석이 되고 싶습니다.

